곤충아 놀자!
2022 고양곤충 페스티벌

곤충과 친구가 되는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 '고양곤충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렸다. 곤충을 직접 보고 만지며, 자연 속 생명의 귀중함과 다양성을 마주할 수 있었던 고양곤충 페스티벌의 현장을 소개한다.

보고 느끼는 신기한 곤충 이야기

고양곤충 페스티벌로 향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에 울려퍼졌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 행사장은 가을을 맞아 나들이 나온 인파로 가득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입장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곤충 체험존'에 모여들었다. 세 개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에서 곤충 체험존은 단연 인기 만점이었다.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슈퍼 밀웜 등 도감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곤충들이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자태를 뽐냈다. 아이들은 직접 만져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곤충과 교감하고 자연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공원 내 마련된 수십 개의 부스는 저마다의 곤충 이야기로 가득했다. 다양한 곤충과 곤충의 생활사가 전시되고, 곤충사육 키트, 가축 먹이, 벌꿀 상품 등 판매 부스도 열렸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도 마련되었다. 곤충 퀴즈를 푸는 곤충 골든벨, 곤충 페이스페인팅, 나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다. 이어 축제 이튿날에는 어린이 오케스트라, 가와지볍씨 동요 등 문화공연도 진행돼 페스티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아이에게는 곤충과 함께하는 추억을, 어른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시간을 선물한 고양곤충 페스티벌 덕에 시민들의 가을날이 더욱 풍성해진 느낌이다.

Mini Interview

이송자(고양곤충산업연구회 회장)

많은 어린이들이 곤충에 관심을 갖고 즐길 수 있는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고양시에는 쌍별귀뚜라미, 꽃무지 등 곤충을 사육하는 40여 농가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곤충의 소중함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정, 손하준(부천시 심곡본동)

오랜만에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어 좋았어요. 곤충을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아이에게 유익한 교육의 기회도 됐고요. 제가 먼저 체험 시범을 보이니 아이도 겁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